

比較芸術フォーラム

2009年6月22日(月) 18時

동경대학 코마바 캠퍼스 18호관 4층콜라보레이션 룸 1
東京大学駒場 I キャンパス 18号館 4階コラボレーションルーム 1

강연회 · 講演会

윤신향 (서울)

“윤이상의 사회참여작품”

윤 신향
尹 信香 (ソウル)

윤이산
『尹伊桑의 社会参加的 作品』

한국 출신의 독일 망명 작곡가 윤이상 (1917-1995)은 창작후기에 여러 사회참여 작품을 남겼다. 그의 사회의식은 평양에서 작곡된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1987)와 동경에서 <에필로그>와 함께 초연된 <화염에 쌓인 천사>(1994)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다. 전자는 분단 한국의 통일을 염원하였고, 후자는 민주화 투쟁의 현장을 '기억'하였다. 이 강연은 두 작품의 양식적 특성을 소개하고, 사회참여 작품이 윤이상의 창작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설명한다.

韓国出身でドイツに亡命した作曲家尹伊桑 (1917-1995)は、創作後期に多くの社会参加的 作品を残した。彼の社会意識は平壤で作曲された『我が国土、我が民族よ!』(1987)と、東京で『エピローグ』とともに初演された『炎に包まれた天使』(1994)において、それぞれ異なった仕方で表出されている。前者は分断された韓国の統一への念願を表したものであり、後者は民主化闘争の現場を「記憶」したものである。この講演では、二つの作品の様式的特性を紹介し、社会参加的 作品が尹伊桑の創作世界において占めている位置について説明する予定である。

尹信香氏は韓国淑明女子大学校声楽科大学院卒業後ドイツに留学、音楽学、ドイツ文学、哲学を専攻。2001年ケルン大学で音楽学の博士号を取得。博士論文は *Zwischen zwei Musikwelten: Studien zum musikalischen Denken Isang Yuns* として 2002年にドイツで出版。韓国では 2005年に単行本 “윤이상, 경계선상의 음악” (尹伊桑—境界線上の音楽) 出版、その他論文多数。

講演言語: 韓国語 (通訳付き)
강연언어: 한국어 (일본어 통역)

討論言語: 日本語、韓国語
토론언어: 일본어, 한국어

主催: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超域文化科学専攻比較文学比較文化研究室
問い合わせ: ゴチェフスキ研究室 <http://fusehime.c.u-tokyo.ac.jp/gottschewski/>
gottschewski@fusehime.c.u-tokyo.ac.jp